

“아름다운 부부”

사도행전 18:1-4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개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곳기에 사단은 이 두 공동체를 파괴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첫번째 목표는 사실 가정입니다. 실제로 사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아니하시고,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향해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남자’와 ‘남편’은 다른 것입니다. 남자는 그냥 남자이지만, 남편은 한 아내를 책임지게 하기 위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게 하는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라는 마음으로 마치 내 몸을 대하듯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열달 동안 태중에 품었다가 출산한 자녀를 자신의 분신과도 같이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도와 온전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신체적으로, 성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서로를 보완시켜 주며 완성시켜 줍니다. 한 사람이 빠르면 한 사람은 느리고, 한 사람이 소극적이면 한 사람은 적극적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절묘하게 보완해 주며 하나의 완성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부부들 중, 가장 아름다운 부부로 인정받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어떤 부부였기에 아름다운 부부로 인정받는 것일까요?

1. 언제나 함께 하는 부부였습니다.

성경에 이 부부에 대한 기록이 여섯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섯 번 모두에서 이 부부의 이름은 언제나 같이 등장합니다. 이 부부는 즐거울 때 뿐 아니라,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도 언제나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행 18:1-2)

역사가들에 의하면, 아굴라는 본래 유대인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에 로마에서 자유인이 되면서 당시 로마의 유력 가문과 연관을 맺고 있던 브리스가 가문의 유대인 여자 브리스길라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 천막제조와 가죽수공의 기술이 있던 아굴라는 자신의 기술과 브리스길라 가문의 재력과 연결시키며 상당한 사업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해 오던 이 부부에게 어려운 상황이 다가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고 하며 유대인들에게 로마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 남자들은 반드시 떠나야 했지만, 여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남을 수도 있었기에 브리스길라는 본인만 원한다면 로마에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 아굴라와 함께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거처를 옮깁니다. 즉, 재산과 사회적 안정을 포기하고 남편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만난 바울이 선교를 위해 에베소로 간다고 하니까 바울을 따라 함께 에베소로 떠납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계획을 갖자, 이들 부부는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서 바울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 부부는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언제나 함께 주의 일에 힘써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일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언제나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부부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7:5)

사탄이 언제 부부를 시험할까요? 부부가 함께 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부부는, 기쁨의 순간도, 영광의 순간도 함께 해야 하지만,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도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며 그 시간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서로를 격려해 주는 부부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성경에 6 번 등장하는데, 가정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때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사역에 대해 언급할 때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는 남편이 리더십을 가졌으나, 사역에서는 아내가 더 리더십을 가지고 활발하게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서로의 능력을 인정해 주고, 장점과 단점을 상호 보완해 주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보완한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이 군림하고 아내를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랑과 섬김, 희생과 헌신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없으며,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겨서 손해보는 것이 바로 부부싸움입니다. 물론 각기 다른 성장과정을 경험한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처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서로를 격려해 주고 사랑으로 섬겨 주기에 힘쓴다면, 우리도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한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은 이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기 전, 즉 그들이 과거 로마에 살고 있을 때 이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오게 된 이 부부는 그 곳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1 년 6 개월 동안 바울 곁에서 말씀을 깊이 있게 배웁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두 사람은, 복음을 위해 그들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떠날 때 이 부부도 고린도의 모든 살림을 정리하고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바울을 돕기 위해 바울보다 먼저 로마

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자기의 집을 열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가정 교회로 내어 놓습니다. 이런 이 부부의 헌신에 대해 바울은 그들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로마서 16:3-5)

이 부부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1 년 6 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바치며 함께 헌신했습니다. 또 복음의 헌신자가 되기 위해 이 부부는 자신의 생활 터전도 기꺼이 정리하고 에베소로 가는 바울을 따라 나서며 함께 헌신했습니다.

또 복음의 헌신자가 되기 위해 이 부부는 로마로 다시 들어가 자기들의 집을 교회로 오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부부는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헌신을 통해 귀한 사역들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정서적으로 서로 잘 통해야 행복한 부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바로 신앙안에서 하나가 된 부부입니다.

신앙안에서 하나가 된 부부는 어떤 약조건도 능히 뛰어 넘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기에 위에 설명한 '행복한 부부의 조건들' 중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은 바로 '헌신의 신앙'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부부는 차원이 다른 신앙수준을 갖고 있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배워야 합니다. 또 그들이 함께 바울을 도와 그들의 안락한 삶을 포기했던 것처럼, 복음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것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부가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아름다운 부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아름다운 부부'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로 삼은 세가지 가운데, 우리 가정이 배우고자 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이루어 가기 위해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한 것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